대규모 종단불사 순항…불교문화 세계로

위기 속 사부대중 원력 결집
백만원력결집 이례적 동참률
불교중흥 실현 일궈낼 토대

전통문화 보존 · 활용 큰 관심
규제법령 개선작업도 본격화
연등회 등 세계 속 불교문화

〈1면에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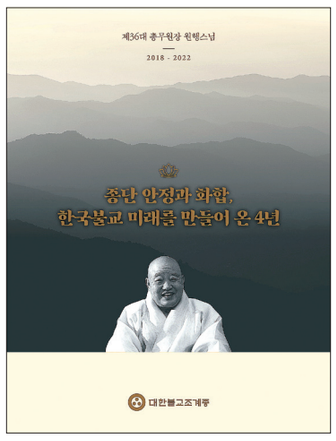
사찰을 찾지 않아도 안방에서 법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빠르게 마련됐고, 불교계 각종 회의와 주요행사는 실시간 생중계 및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36대 집행부는 일선사찰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았다. 재정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분담금 감면을 결의한 것. 이에 조계종 스님들은 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를 결정해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어려움 속에서, 서로 연대하는 힘으로 희망을 전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나간 모습으로 평가된다.

#원력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닥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가는 과정은, 사부대중의 마음과 원력을 모으는 계기로 이어졌다. 바로 핵심사업 '백만원력결집불사' 다.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백년대계를 담보할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원력으로 백만원력결집불사를 선언했다. 굵직굵직한 종단 목적불사들을 백만대중의 원력으로 일궈내겠다는 포부였다. 그러나 십시일반 모연에 의존한 대규모 불사는 추진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많았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무엇하나 쉽지 않은 불사인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와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부대중의 원력은 그야말로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했다. 한국불교 중흥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길에 동참하고자 원력을 세운 수많은 사찰과 스님 · 불자들이 하루 100원을 보시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 시작한 것. 백만원력결집불사 선포 이후 불과 4년만에 120억 원이 모연됐고 분황사, 광제사, 계룡대 호국흥제사 건립불사가 잇따라 결실을 맺었다.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은 공사에 착수했으며, 오랜 시간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10.27법난 기념관 건립불사는 사업대상지 변경을 통해 조속 추진을 앞두고 있다. 어렵게 모아낸 사부대중의 원력을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로 이어가는 것은 차기 집행부의 과제로 남았다.

#전통문화 보존 36대 집행부는 전통문화 보존과 활용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특히 '전통문화유산은 미래의 자산' 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사찰 관련 각종 규제법령 폐지와 대체입법 추진에 매진했다. 불교 관련 국가법령 제 ·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단의 오랜 과제로 묵혀왔던 제개정 목록과 제개정안들을 정리해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매장문화재 소유권 판정절차의 간소화, 문화재보호법 개정 성과를 일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해법과 대안을 담은 법안 발의를 이끌기도 했다.



제36대 집행부 성과자료집.

윤석열 정부가 전통문화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도 이어졌다. 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불교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정책자료집을 제작 · 배포하는 등 노력을 개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모두 전통문화 보존정책을 비롯한 불교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실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전통문화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정책발전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연등회의 유네스코 지정은 불교를 넘어 국가적인 경사였다. 한국 전통문화의 기저에 새겨져 있는 불교유산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36대 집행부는 연등회의 유네스코 지정에 이어, 올해 20주년을 맞은 템플스테이 홍보를 확대하고 세계최고(最古) 금속활자〈직지〉의 영문, 불어 번역서 발간을 통해 내용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매진했다.

#차별에서 평등으로 36대 집행부는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하기도 했다. 승려대회는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종교간 갈등을 예방하고 잘못을 개선해, 우리사회가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우리사회 모든 차별을 없애고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편찬위원회는 성과자료집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36대 집행부는 이제 소임을 마치고 수행과 포교의 현장으로 돌아간다"며 "미래불교를 열겠다는 서원으로 일궈낸 소중한 성과들이 향후 종단 발전과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무산선원은 9월 19일 오후 선원 내에서 '제1회 만해 무산 기념 시 낭송회'를 개최했다. **사진= 노덕현 기자**

무산 스님 예술혼, 북악산 자락 적시다

무산선원, 9월 19일 시 낭송회
개막식에 문화계 인사 대거 동참

서울 북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무산선원에 세간에서는 '시조시인 조오현'으로 알려진 무산 스님(1932~2018)의 작품들이 초가을을 알리는 바람을 타고 잔잔히 울려 퍼졌다.

무산선원(주지 선일)은 9월 19일 오후 선원 내에서 '제1회 만해 무산 기념 시 낭송회'를 개최했다.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의 후원으로, 개원식과 함께 진행된 이날 시낭송회에는 이근배, 오세영, 조정래, 김초혜, 유자효, 정호승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들뿐 아니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양규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희옥 前 동국대 총장, 성낙인 前 서울대 총장 등 문화계, 정치계, 종교계 등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다.

200여 명의 동참자들은 선원을 가득 채우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와 무산 스님의 '아득한 성자' '파도' '마음 하나' 낭송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만해 스님의 자주독립 사상과 무산 스님의 화합 · 상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주지 선일 스님은 이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사)한국시인협회(회장 유자효)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 낭송회에 앞서 진행된 개원식에서 권영민 교수는 무산선원에 대해 "규모는 작아 보일지 모르나 문화예술인사들이 서로 마음속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작은 사랑방"이라면서 "수행만 하는 곳이 아닌 문화예술인들의 마당놀이 장소"라고 소개했다.

한편 앞으로 선원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시낭송회가 열린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musan.org.kr)를 통해 가능하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미얀마 군부 '아동 살해'는 반인륜 범죄"

조계종 사노위, 9월 21일
미얀마 군부 규탄 기자회견

미얀마 군부의 헬기 기관총 사격으로 9월 16일 어린이 11명이 숨진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자국의 어린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미얀마 군부를 강력 규탄했다.

사노위는 9월 21일 서울 한남동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군부의 아동 살해 규탄과 군부 퇴진'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9월 16일 미얀마 북부 지역 사가잉 타바인구 마을에 있는 불교 사원 내 학교에 총격을 가했다. 미얀마군은 1시간 동안 학교에 기관총을 발사했고, 군의 공습으로 어린이 11명이 숨지고 학생 등 17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진다.



사노위원 스님들은 먼저 나무아미타불 정근으로 미얀마 군부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아동들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기도시간을 가졌다.

이어 사노위는 성명서에서 "미얀마 군부의 어린이 살해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어린 학생들에 대한 살생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 용납받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사노위는 △유엔(UN) 차원의 즉각적인 진상조사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임은호 기자**

"우즈벡 韓대사관, 자은사 보존 힘써달라"

조계종 9월 22일, 협조 서한
"면담 통해 보상 논의" 요청

우즈베키스탄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주지 조주)가 법당 위를 관통하는 전철 공사로 폐사위기에 몰린 가운데, 조계종이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보존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은 9월 22일 사회부장 원경 스님 명의로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자은사 보존을 위한 협조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조계종은 "자은사는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에 소재한 한국사찰로 1991년 이래 30여 년 간 고려인 동포를 포함한 우즈베키스탄인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자은사와 제대로 된 사전 합의 절차 없이 자은사 토지와 건물을 관통하는 지하철 공사를 강행했다는 점을 고지했다. 특히 공사를 사차 담장 10m 앞 지점까지 완공하면서 대도나 사찰 이전을 위한 협의 및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조계종은 "이 문제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의 책임있는 당국자와 자은사 조주 스님과의 면담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조계종 아시아 거점 사찰인 자은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문화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길 요청했다.

조계종은 서한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주 스님에 따르면 관할청은 협의없이 공사를 강행했고 결국 경내 위를 관통하는 전철 건설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됐다. **임은호 기자**

"'국가부도' 스리랑카에 식료품 지원"

아름다운동행, 3개월 간 모금
쌀 · 소금 등 '식료품 키트' 지원

조계종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이 국가 부도 고통 받고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식료품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

스리랑카는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인해 지난 4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대통령 사임, 반정부 시위, 물자 부족 등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혼란기를 겪고 있는 상태다.

특히 연료를 구하기 위해 주유소 앞은 길게 줄이 늘어섰으며 물가 상승률이 60%이상 오르면서 식료품과 의약품은 물론 생필품 조차 구하지 못해 국민들이 생활에 큰 여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름다운동행은 국가 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쌀과 렌틸콩, 소금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키트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약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스리랑카는 국민 대다수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불교국가"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우선 필요한 식료품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모금에 많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국가 부도로 인해 고통받는 스리랑카인을 위한 식료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개인과 사찰은 특별모금 전용계좌(농협 301-0315-9664-31 재)아름다운동행)로 동참할 수 있다.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www.dreaminus.org) 참조. 카카오톡 문의:(채널)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 (02)737-9595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德崇叢林 修德寺
方丈 達河 愚松
叢林大衆一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www.sudeoksa.com 전화 041)330-7700 팩스 330-7702
◉ 선 수행 템플스테이 전화 041)330-7789 (sudeoksa@daum.net)
◉ 수덕사노인요양원 전화 041)338-7711 ◉ 사회복지법인 修德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海寺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전화 : 054)335-3318 팩스 : 054)335-0293